

백신 이어 치료제 개발 '성큼'... 국내외 제약사 막판 스퍼트

(코로나19)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FDA 승인 mRNA 기반 코로나 백신 출시 임박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연내승인 기대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물질 생산 /셀트리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치료제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제약사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앞다퉈 출시에 나서며 이례적인 속도 경쟁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나온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REGN-COV2'가 현지시간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치료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며 알려졌다.

REGN-COV2는 앞으로 경증 또는 중간 정도의 증세를 보여 통원 치료가

가능한 12세 이상 환자들에게 투약될 예정이다.

FDA는 REGN-COV2의 사용이 외래환자 입원을 줄이고 의료체계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RNA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출시도 임박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

신 중 처음으로 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이자 12월 승인을 받아 연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모더나 역시 곧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더나는 지난 16일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mRNA-1273'의 백신 효과가

94.5%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오는 12월 둘째 주 열리는 FDA 자문회의에서 긴급사용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출시 속도 경쟁 과열

다국적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들도 연내 개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백신 후보 물질은 몇 주 안에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연내 백신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임상 3상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사노피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 역시 미국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갈 예

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국내 공급이 원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모인 다.

국내에선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만이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현재 'CT-P59'에 대한 임상 2·3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며, 임상 2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할 경우, 연내 긴급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반면, 국내 백신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문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1상 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은 연내 임상 1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내년 하반기 토종 백신 개발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LH, CEO 등 경영진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조직 신설... 전세난 극복 총력”

주거안정추진지원단 발족, 현판식 공공주택 조기입주 등 과제 논의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오른쪽 여덟번째)이 주거안정추진 지원단 발족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 대책)' 총력 지원을 위해 관련조직을 신설하고, CEO 등 경영진을 필두로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난 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중 LH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주택 공급 등을 통해 최소 80% 이상의 물량을 담당할 계획이다.

정부정책 발표 직후 LH는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내 전세물량 공급 등 정부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변창흠 LH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공실의 전세형 전환계획 ▲신규 공공분양·임대주택 조기입주 추진 ▲매입약정방식 등을 통한 공공전세 신규도입 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의 수행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오는 '21년 상반기까지 전체 계

획물량의 40% 이상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가능 물량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한편, LH는 같은 날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과 현장밀착형 사업추진을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거안정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해당 조직은 앞으로 본사와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형 주택 공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영우 기자 ywj964@

“마음은 더 가까이” 비대면 콘서트 각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오프라인 행사를 찾아 보기 어렵게 됐지만 IT 기업이 기술력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열고, 팬미팅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콘서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글로벌 K팝 콘서트 '온:한류축제'를 동시 개최했다. 네이버는 온:한류축제 마지막날인 23일 오후 7시, 글로벌 K팝 콘서트와 팬미팅을 브이라이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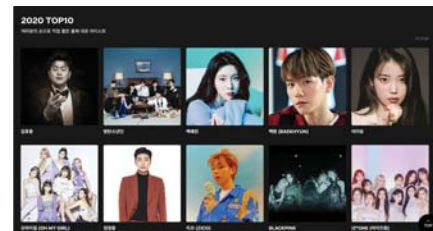
이번 공연에서는 슈퍼엠, 몬스타엑스, 오마이걸, 있지 등 유명 아이돌그룹 뿐만 아니라 힙합, 일렉트로니카, 퓨전 록까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공연에서 브이라이브의 고도화된 라이브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K팝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을 '멜론뮤직어워드(MMA) 위크'로 정하고 온라인으로 'MMA 2020'을 개최한다. MMA는 매년 한 해를 빛낸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출연하는 국내 최대 대중음악 축제다.

MMA 2020은 멜론 앱/웹, 카카오TV 탭,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즐길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한 해 동안 멜론에서 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 10명(탑)을 의미하는 'TOP10'에 김호중, 방탄소년단, 백예린, 백현, 아이유, 오마이걸, 임영웅, 지코, 블랙핑크, 아이즈원 이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

칼자루 권 산은 “일방적 우호 의결 방지, 견제 장치 마련”

» 1면 'KCGI, 한진칼...'서 계속

한진칼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을 지정해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것은 조 회장의 경영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현재의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로 간다면 2021년까지 부족 자금이 약 4조8000억원, 2027년 말까지는 6000억원이 추가돼 총 5조4000억원의 정책자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통합 시너지 효과 등 2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절감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정책자금 축소 및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

사결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산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2개월 걸려”

산업은행은 경영권 방어보단 '경쟁력 확보' 목적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항공산업 재도약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데, 한진칼의 재무적 상황도 녹록치 않다는 것.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조달을 할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돼 긴급하게 자금요구가 충족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진칼 회사 정관 제8조 1항에 따르면 주주는 주식수에 비례해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지만 2항에는 긴급한

자금을 위해 국내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단일 국적 항공사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산업은행은 또 일방에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본건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주식 시가는 총 2730억원으로, 기담보제공 채무금액 감안시 실질담보가치는 약 1700억원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 미

흡시 담보주식을 처분하고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는 등의 책임을 더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로 7대 의무조항을 부여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칼 사외이사 3인 선임권을 갖고 있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산업은행과 사전협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순히 회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내세우기에는 통합 국적항공사의 영업상황 회복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의 8000억원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5000억원) 대금 납입일은 다음달 2일, 교환사채(3000억원) 대금 납입일은 같은 달 3일이다. 이르면 다음달 1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